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5년 4월 16호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요선터널이 개통된 년도는?

조운동네 좋은소식 16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5년 4월 15일 부터 28일까지
발표 2025년 5월 7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그래도 조운 2

2025 도시재생 운영위원이 바란다 8

우리동네 기억지도 12

조운 친구들 14

조운동네 이런일이 16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5년 4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표지일러스트 유환석
『춘천의 어제와 오늘』을 참고하여 일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조운동네 좋은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2년 ~ 현재 (4년차)



4/6/8/10/12월 15일 발행



“훗ㅋ” 하고 웃었다면, 들어오세요

훗
김명 대표

어떻게 ‘훗’ 카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언젠가 춘천에 놀러와 소양강 강변을 산책하는데, 아이와 함께 걷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여기서 살자”는 마음이 들어 바로 이사를 결정했고, 자연스럽게 카페도 춘천에서 열게 됐어요. ‘훗’은 짧은 웃음처럼 가볍지만, 오래 기억되는 이름을 담고 싶어 지은 이름이에요. 지나가던 분들이 간판을 보고 피식 웃는 모습도 이 공간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비 오는 날에만 판매하는 ‘시나몬라떼’처럼,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작지만 특별한 경험을 전하고 싶어요.

독특한 메뉴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오픈 전 6개월 동안은 거의 하루 종일 우유만 연구했어요. 브랜드마다 맛과 농도가 달라서 조합을 어떻게 해야 가장 고소하고 부드러울까 고민했죠. 마닐라 여행 중 마셔본 소금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서 오히려 자극을 받았고, 그때부터 ‘더 맛있는 소금커피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십 번 레시피를 수정했어요. 오렌지라떼도 단순한 레시피에 ‘나만의 방식’을 더해 특별하게 만들고자 했고요. 지금도 모든 음료는 그날그날 습도, 온도에 따라 세팅을 달리해서 맛을 조율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며, 정성을 담아 한 잔 한 잔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있다면요?

지금도 매일 새벽에 나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앉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죠. 목표가 있다면 언젠가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고 싶어요. 물론 요선동 안에서요(웃음). 오븐을 들이고, 디저트 베이킹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여건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준비 중이에요. 이 공간을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훗’이라는 감성이 담긴 브랜드로 키워보고 싶거든요.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손님과 제가 모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훗’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조운

사람은 속여도 반죽은 못 속이죠

조운베이크샵
박정우 대표

조운베이크샵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조운동 토박이예요. 장사도 조운동에서 처음 시작했죠. 처음에는 일본식 카레 가게를 운영했어요.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맛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춘천에 정말 맛있는 빵집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워낙 빵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제빵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해 벌써 8년째네요. 최근에는 새로운 메뉴로 포카치아를 만들고 있어요. 이탈리아 전통 빵인데, 도우에 올리브유를 듬뿍 바르고 토마토, 허브, 치즈 등을 얹어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고소한 풍미도 뛰어나고요. 저희는 밀가루부터 직접 고르고, 천천히 저온 숙성시켜서 반죽을 만들어내요. 포카치아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과 재료가 꽤 크지만, 그만큼 손님들도 먹자마자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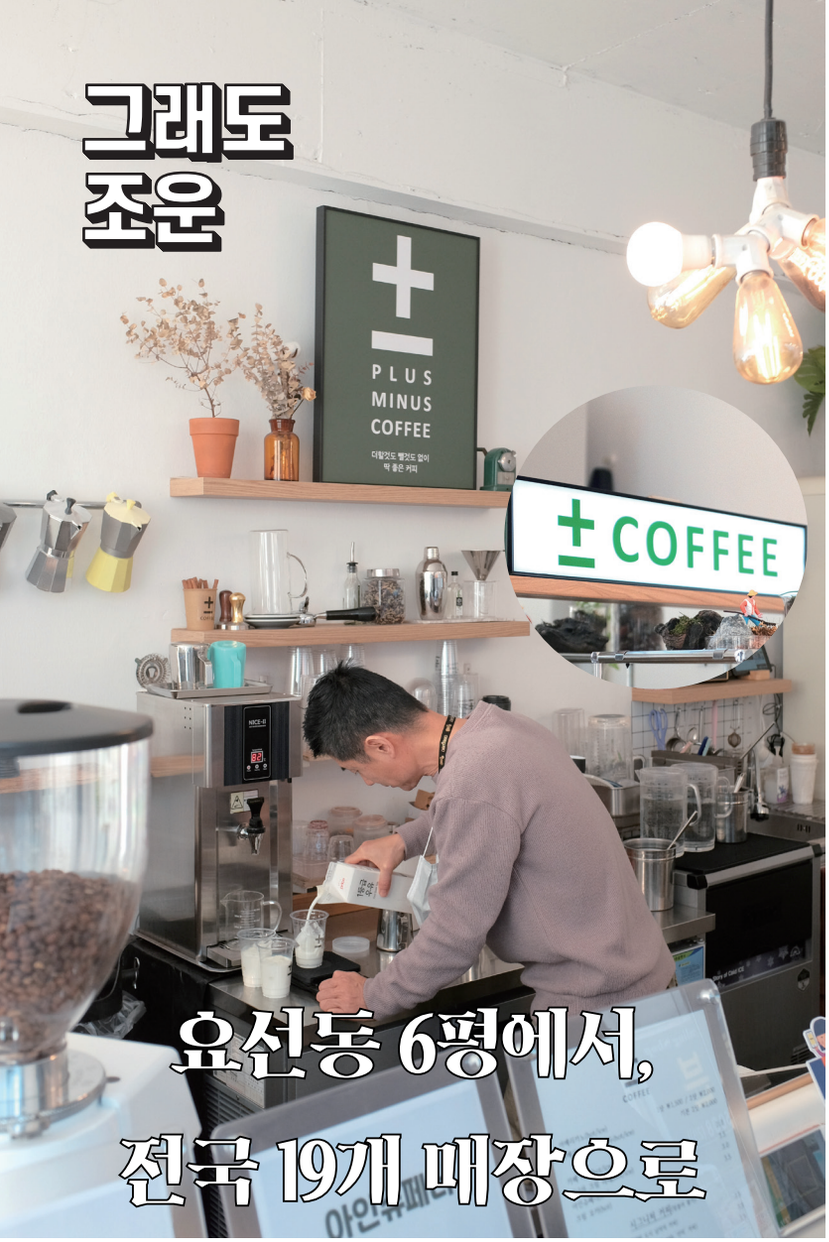
빵을 만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다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재료'예요. 저희는 무조건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지켜요. 남는 건 아깝더라도 버립니다. 오렌지도 껍질까지 삶아서 수제로 시럽을 만들어요. 오렌지 파운드케이크 하나에 오렌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밀가루도 직접 골라 써요. 가게에 놀러온 제빵사 친구들이 "이런 밀가루를 영업용으로 쓰는 건 너밖에 못 봤다"고 말할 정도예요. 물론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죠. 아침 일찍 반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진짜 '제빵사는 죽어도 서서 죽는다'는 말이 농담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이 좋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사람들의 발길도 줄고, 분위기 자체가 좀 조용해졌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가게를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서울에서 매달 빵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는 슈톨렌을 사서 모임에 나눠주시고 다시 인사까지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손님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게 돼요. 지금은 큰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빵을 굽고 있어요. 저희는 광고도 잘 못하고, SNS도 잘 못해요. 하지만 맛을 아는 분들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새벽부터 반죽을 시작하고,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빵을 만들 생각이에요.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원동력이거든요.





그래도 조운

요선동 6평에서, 전국 19개 매장으로

플러스마이너스커피
김득상 대표

어떻게 요선동에서 카페를 시작하게 됐나요?

당시에 제일 큰 이유는 임대료였어요. 명동 쪽보단 확실히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은행이랑 병원, 학교, 시청, 도청까지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이더라고요. '여긴 무조건 점심 장사 된다' 싶었죠. 특히 요선동은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없는 상권도 아니라서 시작하기엔 딱 좋았어요. 어느새 6년이 지났는데, 주변의 가게는 자주 바뀌어도 저희는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요선동에서 시작하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플러스마이너스커피가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메뉴를 다양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소화하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에 집중했죠. 대표적인 게 맨하탄 커피랑 플러스마이너스 밀크티예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이 생기고, 그 단골이 나중엔 창업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있는 19개 매장도 사실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로열티를 받거나 재료를 공급해주거나, 가격 결정이나 메뉴 등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저는 창업 과정에서 도움만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확실하니까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이제는 무작정 매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희소성과 매력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곧 원주에 직영점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관광지 위주로 '플러스마이너스 밀크티' 브랜드를 특화해볼 계획이에요. 또 곧 책도 한 권 나옵니다. 제목은 '하루 6시간 일하고 1억 버는 시골 밀크티 카페'인데요, 요선동 6평짜리 카페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요선동이 창업 초기에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지도 자세히 나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2025 도시재생 운영위원이 바란다



주민과 함께 만든 도시재생의 발자국

최신민 대표&새명동 분과장, 민엔지니어링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처음엔 참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움직였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초창기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조운동에도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갔다고 생각해요.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닐 수 있어도, 그 과정 안에서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조금씩 더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주민 참여가 점점 줄어든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느끼는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체가 사라지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관계는 분명 남아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형태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상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크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진짜 변화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운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상가,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졌어요

이현주 부대표&지하상가 분과장, 뽀샤시 운영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엔 솔직히 '그냥 한번 참여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인대학도 듣게 되고, 체험 행사도 참여하게 됐고, 꾸준히 함께하다 보니 지금은 지하상가 부대표 역할까지 맡게 됐죠. 돌이켜보면 이 사업 덕분에 지하상가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고,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그런 변화를 몸소 느끼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죠. 특히 좋았던 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이들 손잡고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행사들은 가족 단위 손님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고, 상인 입장에서도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상인대학에서 배운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이나 마케팅 강의도 실제로 장사에 도움이 됐고요. 나도 모르게 배운 걸 매장 운영에 하나씩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개선할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을 통해 많은 걸 시도해볼 수 있었던 건 분명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예전엔 상인들끼리 연결고리도 약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서로 얼굴도 익히고 소통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앞으로도 지하상가뿐 아니라 요선동, 새명동까지 골고루 활기가 돌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025 도시재생



상권에 다시 불을 켜는 마음으로

이정배 지하상가 부분과장, 은하수커피 대표

저는 지하상가에서 1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이에요.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다가, 3년 전쯤부터는 커피에 흥미가 생겨서 '은하수커피'라는 이름으로 매장 하나를 더 열었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엔 상권이 눈에 띄게 침체되더라고요. 사실 한 번 무너진 상권은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 규모가 꽤 크다 보니, 상권이 살아야 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관리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크니까, 상권이 조금만 활기를 띠어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상인회 이사로 참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위원 활동까지 이어졌어요.

솔직히 도시재생이란 말 자체도 처음엔 막연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이끌어오신 분들, 센터장님이나 대표님, 부대표님 같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는구나 싶어요. 저는 바라는 게 크진 않아요. 다만 예전처럼 젊은 친구들이 "지하상가 한번 가보자!" 하고 찾아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가격의 쇼핑거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분명 다시 살아날 거라 믿어요. 상인들 모두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그 힘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이 바란다



요선동의 작은 변화,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민금자 요선동 분과장, 의정부부대찌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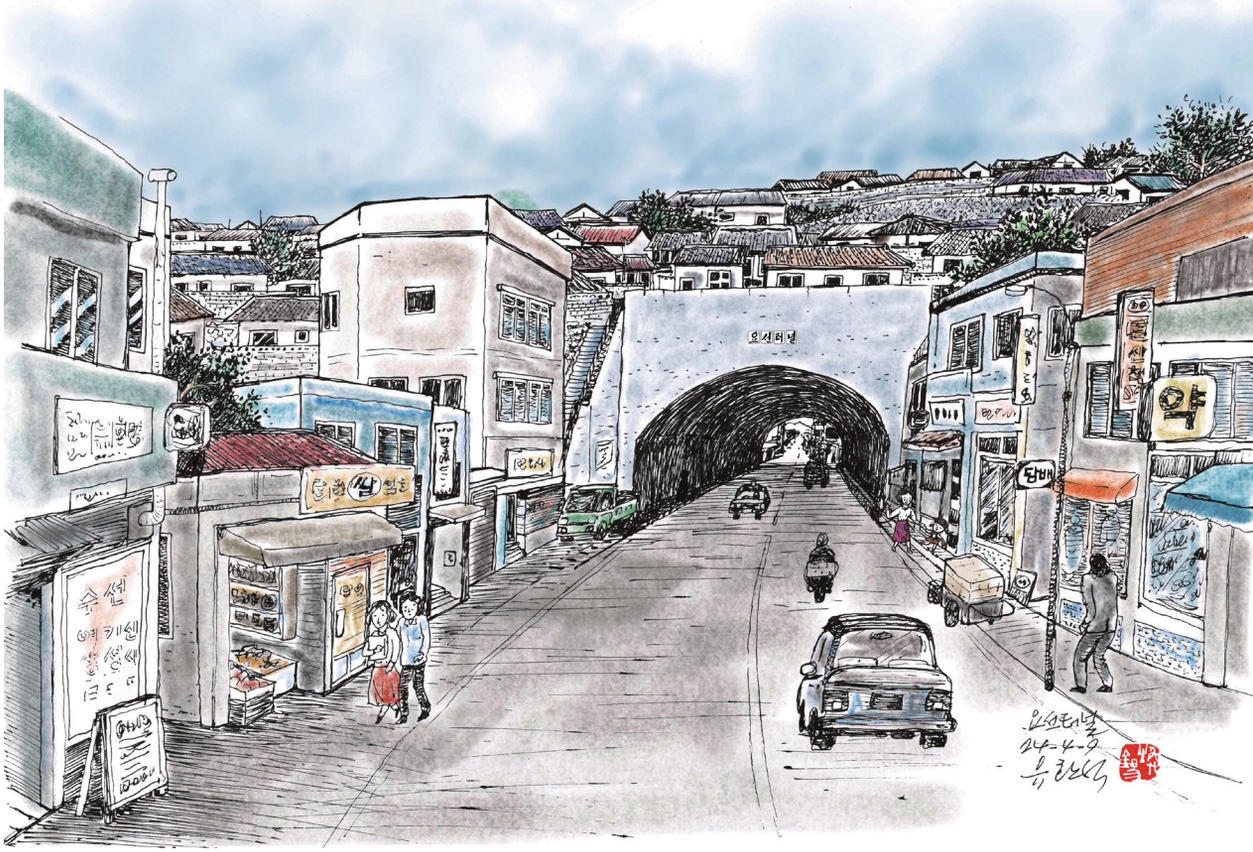
운영위원 활동이 벌써 2년째예요. 처음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조금은 낯설기도 했죠. 그런데 회의에 꾸준히 참여하고, 다른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동네 상황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상권 문제 하나하나가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주차 문제나 오래된 시설 같은 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작게나마 변화가 보일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힘쓰면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보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게는 어머님의 손맛을 이어받아 운영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선동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커요.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좋아서, 정이 있어서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죠.

이제는 운영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동네 이야기도 나누면서 상인들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가게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네가 예전처럼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상인들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어요. 요선동이 다시 웃음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동네 기억지도

요선터널,

추억으로 가는 통로



1970년대 이후 춘천 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선터널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춘천의 중심 도심이라 일컬을 수 있는 요선동에서 차츰 도심 기능이 확산되는 부도심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요선터널이다. 요선터널은 춘천시 요선동에 위치했던 도심 터널로, 1971년 7월에 개통되었다. 이 터널은 서부시장과 요선시장을 연결하여 근화동, 소양로, 그리고 시내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기능을 하였다. 터널의 개통으로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지자 요선동은 더욱 번성하였으며, 1970~80년대에는 춘천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 되었다. 지금은 터널의 길이가 1만 965m나 된다는 인제양양터널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도심 안에 산줄기를 뚫어 터널을 만든 것이 생소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춘천시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옥천동에서 태어나 요선동이 주요 놀이터였다는 이충은 씨는 "그 당시 요선동의 번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학교가 끝나고 오면 동전 몇 개를 타내어 친구들과 요선터널 주위에 모여서 놀곤 했다. 터널 위의 집들이 인상적이었는데, 터널을 가로질러 근화동 서부시장 쪽으로 나오면 마치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산자락 위에는 집들이 옹기종기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눈에는 터널 위에 있는 집들이 너무 신기했었다."고 말한다.

또한 기와집골 어귀에 친척이 있어 명절 때마다 그곳을 방문했다는 우두동의 김정기 씨는 "봉의산 자락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도청부터 광장까지 언덕을 이루고 있어 고개를 넘어서 돌아가야만 중앙시장 등 광장까지 갈 수 있었다. 터널이 뚫리고 일순간에 가까워지면서 외부 인구의 유입이 더 용이해지고, 요선시장과 서부시장이 동시에 더 번성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었다."고 전한다.

요선터널이 위치했던 요선동의 번성은 다만 1970년대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1896년 강원도 관찰부가 춘천에 설치됨과 동시에 춘천의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춘천부 관아의 누정인 요선당(遙仙堂)이라는 객사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였고, 근대 이후로는 주한 미군 주둔지인 캠프페이지가 소양로에 위치하면서 요선동이 번성하는데 한 역할을 해주었다.

하지만 요선터널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로 인해 누수와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겨울에는 누수로 인해 고드름이 생기거나 바닥이 빙판길을 이루는 등 안전문제가 뒤따랐다.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 1994년에 철거되었으며, 이후 해당 구역은 재개발되어 현재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현재 요선터널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위치해 있으며, 요선터널이 건립되던 시기의 번성만은 못하지만 아직도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이 있어 행정중심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춘천 시민들에게 청춘을 되짚듯이 번성기의 추억을 되새기는 친숙한 장소로 남아 있다.

글_도서출판 산책 원미경

조운 친구들



답답했던 손바느질이, 어느새 10년의 작업이 됐죠



지음 규방공예
이미정 대표

원래 전공은 의상이셨다는데,
규방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원래는 의상 전공했고요, 한복 자격증도 고등학교 때 땄었어요. 대학 다니면서는 다른 길로 빠졌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손을 놓게 됐죠. 어느날 친구이자 한복 선생님인 박진옥 작가님이 "규방공예 같이 해볼래?" 하신 거예요. 처음엔 손바느질이 너무 답답했어요. 재봉틀만 쓰다 보니 손으로 하는 게 느리고 성에 안 찼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소품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못 하는 바느질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지금은 동생분이랑 함께
작업실을 운영 중이시라고요?

센터 허락을 받고 동생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동생은 가죽공예를 하고요. 저희 둘 다 원래는 집에서 했었는데, 그게 진짜 일이 안 돼요. 집에서 하면 집안일이 너무 눈에 밟혀서 자꾸 일에 집중을 못 해요. 나와서 따로 작업실을 갖고 나니 훨씬 좋아졌어요. 동생은 애가 둘이라 집에서는 더 힘들었거든요. 여기 나오니까 오히려 서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테이블도 따로 쓰고 있어서 수업이나 작업할 때도 큰 무리는 없어요.

수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자격증반도 있고 일반 수업도 있어요.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 퇴근 후에 저녁에 오시거나, 점심시간 틈 내서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은 최대한 유연하게 조정해드리려고 해요. 완성까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못 마치면 집에서 마무리하거나 다시 오시기도 해요. 손바느질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셔서 수업은 비교적 간단한 소품 위주로 하고 있어요. 포장도 제가 직접 꽃을 달아드리고 예쁘게 해서, 받는 분들도 기분 좋아지도록 정성을 담고 있어요.

조운동네 이런일이



명성태황후의 품격, 춘천이 보여주다

지난 3월 22일 여주에서 열린 제2회 명성태황후 선발대회에서 춘천 모델교육협회 소속 모델 3인이 나란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금상을 받은 성수미 씨를 비롯해 한복사랑상 동선자 씨, 모델레전드상 함서영 씨까지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협회의 이름을 빛냈어요. 박순희 지회장은 “회원들이 꾸준히 ‘지하도상가 소공연장’에서 연습하며 실력을 다졌고,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대회에 임한 덕분”이라며 그간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매주 화·수요일 연습 후 지하도상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미력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춘천지회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간 대회마다 금상과 최우수상을 놓치지 않을 만큼 좋은 결과를 이어오고 있어요.



좋은 소식



업무 협약 체결

3월 25일 저희 센터에서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상언더그라운드 공간 기반 청소년 교육,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자립적 성장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4/1~4/15	일상을 한 땀 한 땀
4/16~4/30	제11회 한국화가 서영림 개인전
5/1~5/15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화반 산수화전
5/16~5/31	도심 속에서 만나는 바다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